

사순 제2주일

제 1 독서 : 창세 15, 5-12, 17-18

제 2 독서 : 필립 3, 17-4, 1

복 음 : 루가 9, 28b-36

순정이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루가 9, 35).

강론

“참된 아름다움”

강명구 신부 / 창인동 천주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에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아름답게 꾸미려고 화장을 하고 옷치장을 합니다. 남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나이든 어른들이나 할것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은 이러한 외적 아름다움이 참된 아름다움인지 반성해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무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 행복에 대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당신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부활의 모습을 앞당겨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를 완전히 극복한 인간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성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시고, 인간으로서의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죽음을 받아들이므로써 죽음을 넘어서는 무한한 사랑을, 끝없는 용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속과 회개의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회개와 보속의 생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야 하며 십자가의 시련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매일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며,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참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아름다움과 영광은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가슴깊이 새기며 참된 아름다움으로 부활의 영광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사순시기를 보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 16, 24).

소리

“돈타령”

미국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초전에 박살을 내버려 북을 쫓아내겠다고 하고(무섭다), 남북은 ‘당국자’끼리만 왔다갔다 헛미소만 짓고(서운하다), 시민은 폭행범을 잡으려다가 죽임을 당하고(한숨이 나온다), 신자들은 머리에 재를 받았다.

봄이 오고 바람이 세어졌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연을 뗄 수가 없어서인지 해마다 봄의 황사바람을 먹고 산다. 요즘은 중국 동해안의 공장 지대가 내뿜는 오염공기도 먹고 살게 되었지만.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지경이 되어가는 총선거 바람은 그래도 미운 자식들의 비뚤어진 소행을 안타까워 바로잡으려 노심초사하는 부모 심정처럼 우리가 모른 채할 수가 없다.

전국평신도협의회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니 신자로서 할 일은 빼놓지 말고 할 것이지만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태도가 절실할까?

세속적 삶의 바른 길이 하느님 나라의 현관문 열쇠임을 아는 일이 간단한 듯하면서도 실제 현실상황에 닥치고 보면 우리는 자신이 그렇게 세속에만 몰두한 사람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세속과 교회의 거룩함을 나눠 놓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돈의 유혹 앞에 그만 무너져버리는 우리네 심성 말이다.

돈, 돈이 뭐길래 다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일까. 좋고도 더럽다는 돈 때문에 불의가 정의가 되고, 남북은 통일이 안되고, 미국은 우리 농민을 점점 목눌러 죽여가는 것이 라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은 인간에게 잠시 맡긴 하느님의 재물이라는 생각을 온 국민이 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②

“성서란 무엇인가?”

성서란? 거룩한 책이다. 성서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살아 있는 거룩한 책이다.

한 권으로 생각되는 이 책은 한 저자가 집필한 단행본이나 전서가 아니라 73권(구약 46권·신약 27권)으로 된 도서이며, 오랜 구전(口傳) 전승의 기간을 지나 기원 전 9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 약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편집하고 작성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문학 총서라 할 수 있다.

성서란?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성서는 인간에게 생명과 사랑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책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해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백성인 인간을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위대한 행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성서는 고대 근동지방 셈족의 영향을 받은 유대사회의 사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팔레스티나 출신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로 회람문명의 영향을 받아 성문화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구약성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바를 집대성한 것으로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 출애굽, 모세의 율법, 가나안 정착,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 등 구약시대의 전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업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예시하고 있고, 신약성서는 세례자 요한의 활동과 예수의 탄생, 예수의 행적과 말씀, 교훈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도들의 활동, 세상 종말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즉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인류 구원사업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는 또한 계약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에 관한 내용이 구약이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새롭게 완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전인류를 상대로 맺으신 새로운 계약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합하여 성서(Biblos)라고 부르는데 이는



제 1 이사야 두루미리

요한 크리소스토모(5세기경) 성인이 처음 사용한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인간의 작품임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책이다. 성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골로 1, 15 ; 1디모 1, 17) 넘치는 사랑으로 친구를 대하듯 말씀하신 것(계시현장 2항)과 한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겪게 되는 모험을 기록한 책이다. 성서는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이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2디모 3, 16-17).

교회의 공식 가르침은 성서 73권 전부가, 또 그 책들만 영감을 받은 책으로 정전, 경전으로 간주해왔고 트리엔트공의회(1546년)는 이것을 믿어야 할 신앙의 진리라고 정의하였다. 어떤 성서는 제2정전,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는 초세기에 상당한 의혹과 토론을 거쳐 정전, 경전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계몽회원 · 종로회원
 학습지 주부사원을 모집합니다.
 계몽회원, 종로회원, 학습지 선정
 구독
 연락처 ☎ 88-8027~8
 야간 291-0279
 김 금 주(벨라도)

현대 미용학원
 미용 · 피부, 본과, 연구과
 ☎ 86-221, 254-3003
 김금순(테레사)
 신북동 제일예식장 맞은 편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씨롱
 전 광 원 (마르코)
 김 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기 120-1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부 업 토
 대량 확보 · 염가 공급
 인삼 밭 }
 화훼단지 } 퇴비용
 특 작 물 }
 ☎ 공덕(0658)42-1247
 장 승 용(안드레아)

잡 관

“선거를 앞두고”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 말은 독일 뮌헨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하우(Dachau)라는 수용소의 비문에 새겨 있는 글이다. 다하우 수용소,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대(1933-1945), 그러니까 히틀러와 나치(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당원)들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워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를 정복하고자 전쟁을 일으켰던 시대에 이곳 수용소에서만 죽은 사람이 3,2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그 지긋지긋하고 처참했던 유대인 학살과 전쟁을 뒤돌아보면서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썼다는 이 말은 오는 3월 24일 총선을 앞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술한 선거를 치러왔다. 우리 선거사를 보면 여당이 승리한 것은 관권과 금권이 깊이 개입되었을 때 가능했고, 야당이 승리한 것은 야당이 한 목소리로 일치하고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했을 때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정치인들의 부패, 가치관의 혼란,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할지 분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모른 채할 수도 없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그르다’는 묘한 논리(양비론)에 속을 수도 없다. 우리는 과거 우리 역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 불법 타락의 경중과 원인을 가려 이 시대를 책임진 신앙인으로서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야 한다.

교 구 소 식

1. 제12대 평협 임원: 회장-황의옥, 부회장-김형철·박희정·엄익도·최경숙, 상임위원-김연준·이태현·김영철·장경암·오봉익·정경이·이세봉, 감사-이영태·황희상, 사무국장-전자석, 기획부장-오중원, 청소년부장-한귀석, 연구부장-강기연, 사회복지부장-전병진, 전례부장-이주철, 교육부장-최윤범, 여성부장-최성남, 선교부장-전자석, 홍보부장-이중호.
 2. 축! 결진: 3월21일(토) 오후3시 팔마 성당, 3월22일 오전10시 고산 성당.
 3. 성서교실 입학식: 전주지역-오전10시 중앙 성당·오후8시 가톨릭센터, 이리지역-오후8시 창인동 성당, 김제지역-오후8시 요촌 성당, 군산지역-오후8시 둔율동 성당.
 4. 원고 모집: 주제-①교회가 어떻게 부활해야 하는가? ②개인적인 삶의 부활 체험, 원고지 5매 이내, 마감-3월31일까지, 문의-홍보국(85-0041).
 5. 교도소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3월16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6. 종교음악연구 후원회 월례미사: 3월16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4층.
 7. 태아생명 보호미사: 3월16일(월) 오전10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문의 85-5098.
 8. 한글교실 개강: 3월16일(월) 오전11시 가톨릭센터 1층 강당.
- ※ 축! 영명: 19일(성요셉) 안복진, 배영근, 유장훈, 정승현, 나궁열, 김순태, 조정오, 강덕행, 서광석, 최상범, 서석희 신부님 축하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바로 알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 핵 발전소의 현황은 어떠한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웃에게 알리도록 합시다.

응원을 배웁시다. 발표력을 기릅니다.



호남여성종합학원

호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세호남(전주역 앞)☎ 253-1411
 효자(삼천동쌍용APT앞)☎ 221-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박경애(안젤라)

주간종합생활정보신문

호남매매정보

광고, 상품 안내, 구인, 구직,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중고 생활용품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대표 김 영 주(루보) 발행인 겸 편집인 박 선 화(세실리아)
 ☎ 87-6011~2 FAX85-1029
 (0654)43-2023~4 FAX43-2025

요심이 (971) 김병오



사무장 구함

1. 제출서류: 이력서, 1층 운전면허증 사본
2. 자격: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자
3. 연락처: (0658)43-0880
원평 성당 사제관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생활용품

미지를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심미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 (D도)

새 싹 화원

동 양 란 전문
 유 제 형(바오로)
 김 영 근(크리스티나)
 ☎ 72-9044
 (호)012-684-4876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송 남

※ 주일헌금과 교무금납부에 좀더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2. 사순절 특별강론: 대기오염과 자동차(금요일 저녁미사 후) 3. 영세자 특별교리(10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4. 대건회: 공식미사 후, 회장-김동주(유스티노), 부회장-김태영(실비노) 5. 여성연합: 17일(화요일) 어머니미사 후 6. 부활 성가경연대회: 8개 구역(4월19일) 7. 초등부교사 명단: 한상진, 최정민, 정영미, 이은희, 박미영, 이은, 조혜경, 황여진, 정원희, 이인영, 김명희, 박미숙, 이나영, 장윤정. 8. 혼인: 신랑-유영진, 신부-김점순(말지나) 오늘12시. 9. 금주청소: 남노5,6만 차주청소: 중노1,2만 ☐ 사랑의나눔헌금: 35,000원
☐ 지난주 봉헌금: 831,100원 ☐ 교무금: 736,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구역모임: 17일오후3시 태평동1반 김평젠시오씨 대.
18일오후3시 태평동2반 전안드레아씨 대.
18일오후8시 태평동7반 신안토니오씨 대.
19일오후3시 태평동5반 오모니카씨 대.
20일오후3시 태평동6반 이아녜스씨 대.
20일오후8시 태평동4반 홍세자요한씨 대.
2. 아치에스 행사: 17일 오전10시 단원 및 협조단원
3.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부녀회: 19일 오전10시
금주전례: 정승훈 독서-강영구씨 부부 봉헌-황유현씨 가족.
차주전례: 최유남 독서-강주호씨 부부 봉헌-박남수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48,530원 ☐ 교무금: 1,007,41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육

※ 오늘은 사순제2주일: 사순절 저금동은?
※ 모든신자 1인1신실단체에 가입 활동합니다.
1. 성가제: 공식미사 후 2. 성요셉 대축일: 19일(목) 3. 봉성체: 17일(화) 4. 가정방문: 18일(수)-기타 5. 성서읽기: 창세26장~36장 6. 청소봉사: 천주의모친Pr 7. 청년회 임원개편: 회장-김준호 부회장-이혜정 총무-안형숙 서기-강은경 8. 화년회: 21일(토) 저녁미사 후 9. 금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 유순천 ② 김순이 봉헌-양주태, 유춘근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 양대환 ② 송정자 봉헌-양재철, 김대권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3,330원 ☐ 교무금: 391,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사순제2주일! (3월은 성요셉의달)
1. 회의: ① 성모회-3월15일(오늘) 공식미사 후
2. 모임: ① 전례부: 3월19일(목요일) 오후8시
3. 알림: ① 부활 판공성사-3월31일(화)부터 4월15일(수) 매일미사 전후(단, 일요일과월요일은제외) ② 봉성체-3월18일(수요일) ③ 미사시간변경-4월21일(일)부터새벽미사-새벽5시, 저녁미사 저녁8시로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④ 사순절 동안 금식과 금육의 절약으로 모든 금육을 불우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모금함에 넣어주세요.(나눔의함) ⑤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700,600원 ☐ 교무금: 366,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오늘은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과 교리실 축성식이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2. 가정방문: 3월18일: 1구역4반, 5반
3월19일: 2구역1반
3. 사목회: 3월20일(금) 오후8시
4.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합니다.
5. 성당청소 봉사구역: 2구역-3반, 4반
☐ 지난주 봉헌금: 684,400원 ☐ 교무금: 854,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오늘은 사순제2주일입니다.
1. 금주모임: ① 바비의 성모 푸리아(오후2시)
② 구역봉사자 모임(저녁7시)
2. 성화회: 16일(월) 오후6시.
3. 성모회: 18일(수) 오전11시.
4. 가정방문 일정안내
17일(화)-전동1,2,3,4반 18일(수)-전동5,6,7,8반
19일(목)-동교동1,2,3,4,5, 20일(금)-동교동6,7,8반
5. 차주모임: 성마리아 끄미시움(오후2시)
☐ 지난주 봉헌금: 1,788,550원 ☐ 교무금: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원 구

※ 아치에스 행사: 오늘 후2시30분, 활동, 협조단원은 의무참석.
1. 사순절 특강: 16일 후7시30분,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2. 자선요일: 아버지미사 매수요일, 어머니미사 끝 수요일
3. 성서교실 입학식: 16일 전10시 중앙성당, 후8시 센타
4. 9구역(주강)반미사: 15일 후7시30분, 사제관에서,
5. 집안신자및 쉬는교우 방문: 17일-6구역, 19일-5구역, 20일-11-3반
6. 성전건축 추진 위원회: 19일 후8시, 바자회 위원 필히 참석
7. 고도스 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6일 전10시30분, 센타3층
8. 회의: 청년회-15일 후8시, 성모회-18일 어머니미사 후, 울드레아-22일 공식미사 후, 감사헌금-익명200,000원
9. 축! 회갑미사: 21일 전11시, 장부시아(이성수모친) 무궁화회관
☐ 지난주 봉헌금: 847,380원 ☐ 교무금: 679,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오! 주 예수여! 주님을 죽음으로 이끈 이 고통스러운 길을.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지나가셨나이까!
1. 십자가의 길: 오늘미사 후 2. 자모회: 오늘미사 후.
3. 전례회, ME모임: 다음 주일미사 후.
4. 반모회: 17일(화) 오전-성원골드 오후-한양운남 저녁-삼정 1,3, 18일(수) 오전-화산1가 오후-신일APT.
5. 성가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6. 울드레아: 17일(화) 오후8시
7.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
8. 반당 전화번호부 및 돼지저금통을 사무실에서 받아 가십시오.
9. 금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 정영진·김희석
차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송영이·김무걸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F A X 223-3824 사목회장이 동 선

※ 오늘은 사순제2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금육과 단식 이외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와 미사참례는 물론 가슴을 찢는 적극적인 참회의 행위와 나눔을 전제로한 구체적인 사랑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모임안내: 데레사회-오늘10시30분
※ 유아세례: 매월마지막 주일 오후4시(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화요일(구. 반장님 환자 접수하세요)
※ 성체조배회원 교육: 매월 둘째 금요일(10:30) 중앙성당
가정방문: 삼정주광1,2단지과 삼천주택1,2,3반(수, 목, 금)
※ 예비자모집: 사무실에 접수하세요(4월26일일교식)
※ 전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주님의 유언을 실천 하는것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05,360원 ☐ 교무금: 1,965,000원

*** 효자동**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반석회: 공식미사 후 2. 새벽회: 오후6시 3. 은혜의밤: 20(금) 저녁10시~익일4:30 초정강사-김스테파노(벨렐방사회)
4. 판공성사: 17(화)오후2시 거성, 침술, 송정 저녁8시 광진1반, 18(수)오후2시 신봉, 신리 저녁8시 광진2반, 19(목) 저녁8시 태백, 무저개, 20(금)오후2시 장승1,2반 저녁8시 두현리.
차주모임: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축! 혼인성사: 신랑-이상환(마지아) 신부: 송미희 오후1시 유전성당
신축헌금봉헌액: 2,320,000원
금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 임정준 ② 임효경 기도① 이필진 ② 손에연
차주전례: 해설-점이룡 독서① 김성택 ② 정병순
기도① 남상용 ② 최윤희
☐ 지난주 봉헌금: 1,177,620원 ☐ 교무금: 2,474,000원